

2023. 9. 8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9월 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

아동담당관

김현미

2133-5162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: 6매

아동보호팀장

김현강

2133-5174

서울시, 저축액의 2배 지원 '디딤씨앗통장'으로 예비자립준비청년 자립 돕는다

- 오세훈 시장, 7일 (사)희망을나누는사람들,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'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지원 협약' 체결
- 2억8,800만 원 지원·4년 간 월 5만원 저축+10만원 매칭해 1인당 750만 원 적립
- 보호기간 중 자신행성 하도록 12~14세 120명 선정·학비·주거비 등 자립 종잣돈
- “독립된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일익 담당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힘쓸 것”

작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 중인 자립준비청년 A군(19세)은 지난 4년 동안 저축액의 2배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'디딤씨앗통장'에 250만 원을 저금했고, 최근 매칭 지원을 포함해 받은 돈으로 대학등록금에 사용했다.

얼마 전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B양(20세)도 7년 가량 '디딤씨앗통장'에 저금해 받은 700만 원을 첫 내집 마련을 위한 전세보증금으로 소중한게 썼다.

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의 전 단계로, 보호종료를 앞두고 아동양육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'예비자립준비청년'들이 '디딤씨앗통장'을 통해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.

- 매달 5만 원씩 4년 간 저금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, 여기에 서울시와 정부가 저축액의 2배인 월 10만 원을 매칭 지원해서 4년간 75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.
 -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등 보호대상아동이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(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 가능).
 - 예비자립준비청년은 자립준비청년의 전 단계로, 양육시설이나 그룹홈·가정위탁에서 생활하면서 만15세부터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·청소년을 말한다. 7월 말 기준 서울시 자립준비청년과 예비자립준비청년은 약 2,526명 정도이다.

- ‘디딤씨앗통장’은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, 취업,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으로, ‘아동발달지원계좌’라고도 불린다.
 -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통장에 아동이나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월별 저축하면, 지자체(국비 포함)가 최대 10만원까지 1:2 매칭 보조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.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 등이며, 만 18세 이후 학자금·취업훈련비용·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-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7일(목) 오전 11시15분 서울시청에서 (사)희망을나누는사람들(김정안 회장),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(김재록 회장)와 「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지원 협약 및 전달식」을 가졌다.

-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4년 간 총 2억8,800만 원의 장학금을 예비자립준비청년 120명에게 지원한다.
- ▲(사)희망을나누는사람들이 2억8,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액 지원한다. ▲서울시는 예비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기간 동안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만12세~14세 아동 120명을 선정한다. ▲장학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20명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에 월 5만 원씩 입금된다. 매칭 금액을 더하면 4년 간 1명 당 총 750만 원을 모을 수 있다.
- 한편, 서울시는 2021년 ‘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’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심리·정서 지원을 강화한 2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. 올해는 2단계 지원대책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확대·강화한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
- 특히, 지난 7월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첫 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용공간 ‘영플러스서울’을 개소, 자립준비청년들의 높은 호응 속에 운영 중이다.
- 김재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“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지원해주신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”며 “이번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후원을 통해 예비자립준비청년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- 김정안 (사)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은 “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한다.”며, “이번 후원 협약식을 계기로 앞으로도 예비자립준비청년들의 꿈을 가꾸어 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“이번 민·관 협력의 후원사업이 예비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할 때 어려움을 한층 완화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서울시는 예비자립준비청년들이 독립된 사회인으로 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에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

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지원 협약 및 전달식 개최 개요

□ 추진배경

- 자립준비청년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필요
- 디딤씨앗통장 후원에 대한 사회적 홍보 및 기부문화 조성

□ 행사개요

- 일 시 : 2023. 9. 7.(목) 11:15~11:40
- 장 소 : 신청사 8층 간담회장1
- 참 석 : 서울특별시장, 김재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,
김정안 (사)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
- 내 용 : 예비자립준비청년(만12~14세) 120명에게 4년간 288백만원의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지원협약 체결 및 장학금 전달

□ 진행순서

구분	시간	진행내용	비고	
협약 및 장학금 전달식	11:15 ~ 11:36	3'	행사 안내 및 내빈 소개	- 사회 : 아동담당관
		2'	사업 내용 및 협약취지 설명	
		10'	참석 내빈 인사 말씀	- 서울특별시장 -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- (사)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
		6'	MOU 체결 및 장학금 전달식	
협약식 퍼포먼스	11:36 ~ 11:40	3'	디딤씨앗통장 블록 쌓기	
		1'	기념촬영 및 종료	



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'영플러스서울' 개소식 ('23. 7. 6.)